

2023. 10. 25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2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예방팀	예 방 팀 장	이 은 규	02-3706-1510
	담 당 자	김 석 진	02-3706-1511
		유 종 표	02-3706-1516
사진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진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	

서울시, 11월부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...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등 집중 관리

- 최근 5년('18~'22년) 화재 총 27,684건 중 겨울철에 7,648건(27.6%) 발생
- 재난약자 화재안전 강화, 대형화재 우려대상 예방 강화 등 4대 전략 중점 추진
- 지하연계 복합대상 179개소 등 소방안전 컨설팅 및 민관 합동 현장훈련 등 실시
- 전통시장 철시 이후 화재인지 및 초기대응을 위한 화재순찰로봇 시범 배치

-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‘겨울철 소방안전 중점 추진기간’ 으로 정하고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”라고 25일(수) 밝혔다.
-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(11월~다음해 2월)에 발생한 화재는 7,648건으로 전체 기간 발생한 총 화재 27,684건 중 27.6%에 해당한다.
- 5년간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532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 사상자 1,710명의 31.1%에 해당하며 특히 주거시설에서 많은 사상자(532명 중 300명)가 발생했다.

- 겨울철 화재의 발생 장소로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3,018건 (39.5%)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1,150건(15%), 판매·업무시설 991건(12.9%) 순이었다.
-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같은 겨울철 화재 피해 특성 등을 반영하여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핵심 목표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전략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.
- 4개 전략 추진사항은 ▶재난약자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대책 ▶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▶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▶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생명 보호이다.
- 우선 재난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쪽방, 고시원,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. 소방서장, 관할 센터장 등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취약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.
-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. 특히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운영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피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3층 이상에 위치한 곳도 있어 소방관 진입창 설치 및 현지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소방안전 강화에 나선다.
-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던 주택에서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나 창호가 설치된 복도식 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 컨설팅 등이 실시된다.

- 소방안전컨설팅을 통해 대상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옥상문 개방을 위한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. 대피공간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맞춤형 피난안전계획 수립 및 대피방법을 집중 홍보한다.
- 겨울철에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통시장(350개소) 등은 화재예방 협의체·자율소방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안전 관리계획 이행 등을 확인하고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.
- 특히 전통시장은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인지 및 초기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시장 철시 이후 야간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화재순찰로봇을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화재순찰부터 초기대응 및 맞춤형 피난유도까지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.
-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179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컨설팅과 함께 시설 관리자 등의 재난현장 대응역량이 강화되도록 민관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.
-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, 지하층 업무시설 등에는 대형 피난구 유도등, 축광식 피난안내선 등 설치와 대피안내도 부착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이밖에도 기존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기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보급 확대와 편의 제공을 위해 정부24(www.gov.kr)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쉽

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.

-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“겨울철을 앞두고 빈틈없는 소방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며 “특히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(별첨) 관련 사진자료 1부.